

# 상고한어 양상부사의 범위\*

尹淳一\*\*

## <목 차>

1. 서론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양상과 양상부사
4. 상고한어 양상부사의 범위와 분류
5. 결론

## 1. 서론

시제(tense), 상(aspect), 양상(modality) 이른바 TAM 범주는 술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시간이나 상황에 대한 화자의 관점에 관한 범주이다. 범언어적으로 TAM 범주들은 종종 의미상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하나의 형태가 하나 이상의 범주적 기능을 갖는다. 이 경우 개별 형태가 내포하는 의미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보편적 의미체계를 수립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전통적으로 양상범주는 가능성, 개연성, 필연성, 의도, 희망, 의무 등을 포함한다. 유형학적으로 살펴보면 양상의 문장 내의 실현 방식은 조동사, 동사의 활용(서법), 접사, 부사, 형용사, 부가어, 첨사, 격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현대한어의 경우 ‘能’, ‘會’와 같은 양상동사(조동사)와 ‘大概’와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1024928).

\*\* 高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也許’와 같은 양상부사 그리고 ‘吧’, ‘呢’와 같은 어기사가 대표적인 실현방식이다.

중국어에 있어 양상(modality, 情態)의 의미기능과 그 체계성에 대한 논의는 최근 彭利貞(2007), 朱冠明(2008), 李明(2001) 등에 의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연구의 대상이 대개 조동사라는 품사에 국한되었으며, 또 다른 양상의 실현방식인 양상부사나 양상어기사에 대한 연구는 부사와 어기사의 하위분류로서 분절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상고한어에도 다수의 양상어휘(modals)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대한어와는 달리 상고한어의 전형적인 양상의미들은 대부분 부사나 어기사 등 양상동사 혹은 조동사가 아닌 형식에 의해 실현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고한어 양상부사에 관한 학계의 연구는 개별 어휘의 의미항을 분류하는 목적의 일환으로 양상의 개념을 일부 사용하였을 뿐, 양상부사 전체를 총괄하는 체계적인 연구는 사실상 全無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종 양상어휘간의 連用, 시상표지와와의 共起, 시상표지로의 발전 등의 거시적인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없었고, 대개 개별 어휘의 語源을 밝히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고는 상고한어 양상부사의 의미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일차적인 연구목표로 설정하고 관련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양상부사가 양상연구의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보다 체계화된 상고한어 양상 의미의 체계를 수립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논의를 위하여 본고는 먼저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상고한어 양상부사의 의미체계를 정립할 것이며, 문헌 검토를 통하여 상고한어에 상용된 개별 양상부사의 구체적인 의미를 귀납하고자 한다.

## 2. 기존 연구의 검토

www.kci.go.kr

양상(modality)은 일반적으로 ‘命題에 대한 話者の 態度’를 일컫는데, 이 개

념은 중국어로는 통상 '情態'로 번역된다.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 서법(mood)이 있다. 중국어로는 '語氣'로 번역되는데, 영문법의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등이 모두 서법에 해당된다. 그런데 '語氣'라는 용어는 서법 외에 '화자의 태도나 어조'를 가리키기도 한다.<sup>1)</sup> 胡裕樹·許寶華(1981:379)는 '어조(口氣)'에 대하여 '긍정, 부정, 강조, 완곡, 활발함, 주저함 등과 같이 사상과 감정 방면의 여러 성향의 표현'이라고 설명하였다. 후자의 '語氣'는 개념상으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해당되는 '情態'와 중복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語氣'가 내포하는 '서법'과 '화자의 태도' 두 개념을 뒤섞어 적용하거나, '語氣' 혹은 '情態'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해당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설명이 결여되어 적용 범위가 불분명하고 하위분류가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현재 학계에서는 조동사가 나타내는 능력, 가능, 의무, 허가와 같은 의미를 일반적으로 '양상(情態)'이라는 개념으로 총괄한다. 이러한 양상 의미의 특수성을 부각하기 위해 조동사라는 품사의 명칭을 양상동사(情態動詞) 혹은 양상조동사(情態助動詞)라는 용어로 대체하기도 한다. 그런데 조동사와 유사한 의미기능을 담당하는 부사들의 경우에는 그 명칭으로 여기부사와 양상부사(情態副詞)가 모두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어기'는 서법의 의미 이외에 명제에 대한 화자의 관점이나 태도 등 이른바 '양상'에 관한 대부분의 의미들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겸손이나 존경과 같이 화자의 사상이나 감정에 관한 다양한 의미들을 모두 포함하기도 한다. 즉, '어기'는 서법과 양상 그리고 감정과 정서까지 모두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범주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기존의 일부 연구들은 '어기부사'와 '양상부사' 등의 용어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서 혼용하여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설사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해도 해당 개념이 설정하는 구체적인 적용 범위가 매우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는 학자마다 어기부사 혹은 양상부사에 대하여 적용한 정의와

1) 『現代漢語詞典』의 '語氣' 항목에는 두 개의 의미항이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발화의 어조(說話的口氣)'이고, 두 번째는 '진술, 의문, 명령, 감탄 등의 각 문법 범주이다.

분류 기준이 동일하지 않아서 초래된 현상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語氣' 혹은 '情態'와 관련한 부사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양성 부사보다 어기부사라는 용어가 더 상용되었다. '어기부사'라는 용어는 王力の 《中國現代語法》(1943)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는데, 王力은 어기부사를 문말의 어기조사와 마찬가지로 '문장 전체의 情緒를 나타내는 부사'로 규정하고 각각이 나타내는 의미를 기준으로 '詫異', '不滿', '輕說', '頓挫', '重說', '辯駁', '慷慨' 등 8종의 하위분류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위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王力은 화자의 관점이나 태도가 아닌 순수한 감정이나 정서만을 기준으로 어기부사를 규정하였다. 하위분류는 매우 주관적인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서로의 경계가 모호해져 전체적인 체계성이 결여되었다. 이후의 연구자들도 '語氣副詞'를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였으나, 이와 같은 개념의 모호성과 비체계성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呂叔湘은 《中國文法要略》(1956)에서 '豈', '難道' 등을 문중의 어기사(語氣詞)로 귀속하고, '竟'은 일반부사(一般限制詞), '必'은 판단부사(判斷限制詞)로, '只是', '就是', '不過'와 '反', '倒', '偏'은 모두 전환관계사(轉折關係詞)로 분류하였으나, 동일 저자의 《現代漢語八百詞》(1980)에서는 '才', '可', '卻', '倒', '偏'을 어기부사로 분류하고 '難道'는 의문부사로 분류하는 모순을 보였다. 趙元任의 《中國話的文法》(1964)의 경우, '語氣副詞'를 대분류로 독립시키지 않고 그 구성원들을 '准', '一定', '大概', '也許' 등을 '可能與必然副詞', '幾乎', '差點兒', '索性' 등을 '範圍和數量副詞', '幸虧', '反正', '究竟', '根本' 등을 '估價副詞' 등으로 각각 분산하여 서로의 공통점을 전혀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근래의 어기부사 관련 연구에서 비교적 주목할 만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張誼生(2014[2000])은 허화의 정도에 따라 현대한어 부사 전체를 묘사성부사(描摹性副詞), 제한성부사(限制性副詞), 평주성부사(評註性副詞)로 대분류하였다. 이 가운데 평주성부사가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어기부사에 해당된다. 張誼生은 어기부사의 증거성 표현에 주목하여, 총 159개의 평주성부사를 傳信類와 情態類로 양분하고 총 14개의 하위분류로 세분하였다. 그는 이들 부사는

고층위술어(高層謂語)로 통사적으로 문장에서의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워 문중과 문두 모두 출현할 수 있으며, 의미적으로는 화자의 사건, 명제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양상과 함께 증거성을 어기부사의 핵심적인 의미 요소로 인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하위분류가 과도하게 세분되어 중복분류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있다.

史金生(2003)은 어기부사와 양상 간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어기부사를 인식(知識)류와 의무(義務)류로 크게 양분하고, 인식류에 證實, 斷定, 指明, 或然, 必然을 포함시키고, 의무류에는 指令, 意願, 疑問, 感嘆, 關係, 特點을 포함시켰다. 이를 기준으로 어기부사가 서로 連用되었을 때 證實)疑問)或然)關係)特點)斷定)必然)意志/感歎과 같은 어순상의 제약이 있음을 밝혔다. 史金生의 분류는 양상의미를 근거로 어기부사 연용시의 어순문제를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어기부사의 의미체계를 과도하게 단순화하여 疑問, 意願, 感嘆과 같이 상호 관련성이 다소 부족한 개념들을 모두 '義務'라는 상위 개념의 하위분류로 처리한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있다.

郭新雨(2003)은 대체로 史金生(2003)과 동일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주목할 점은 평서문, 감탄문, 명령문에서만 어기부사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究竟', '到底' 등과 같이 각종 의문문에 출현하는 부사들을 어기부사에서 제외한 것이다. 어기부사의 의미 유형을 문장의 유형과 함께 고려한 점은 참고할 가치가 크다. 다만 양상의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조동사 '可能', '應該' 등을 모두 어기부사에 포함시켰는데, 이들 단어는 부사보다 동사에 부합하는 통사적 특징이 보다 우세하다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있다. 齊春紅(2008)은 어기부사 범주의 경계가 모호함에 주안점을 두고, 어기부사를 판별하기 위한 9개의 형식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근거하여 어기부사의 전형범주(典型範疇)와 주변범주(邊緣範疇)를 각각 확정하였다. 또한 어기부사를 주관량의 정도에 따라 主觀感量, 主觀估量, 相對主觀大量, 主觀大量으로 크게 4분류하였는데, 그 중 主觀大量에 7개의 하위분류를 추가로 설정하였으며 이 분류체계를 근거로 공기시의 어순 문제를 논의하였다.

謝佳玲(2006)는 기존의 양상 연구가 조동사에 국한된 점을 비판하고, 동사, 조동사, 형용사 등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양상의미 체계를 수립하였다. 謝佳玲은 양상의미를 기존의 인식, 도의, 동력의 3분류 체계에서 평가류를 추가하여 모두 4종의 대분류로 전체 양상의미를 귀납하였다. 평가류는 이미 사실로 인정된 명제의 내용에 대하여 화자가 취하는 관점이나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현대한어의 '難怪', '幸虧' 등의 부사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평가류의 설정을 통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통상 '어기부사'에 귀속되면서도 '양상'과는 무관해 보이던 상당수의 부사들이 하나의 의미체계로 귀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인식양상을 다소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증거성 표지들을 모두 인식양상에 포함시킨 점은 이론의 여지가 있다.

고대한어의 양상부사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현대한어의 분석 방법을 답습한 것들이 많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어기부사'라는 용어로 해당 범주를 총괄하였는데, 그 가운데 '어기' 혹은 '어기부사'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와 하위분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아래는 고대한어 어기부사 관련 주요 연구에서 어기부사의 의미 유형에 관한 설명과 분류를 정리한 것이다.

연구자	수	분류 기준
柳士鎮(1992)	6	肯定, 不定, 或然, 詫異, 反問, 使令
向熹(1993[2010])	6	肯定, 必要, 祈使, 反詰, 揣測, 疑問
吳福祥(1996)	6	肯定, 測度, 強調, 祈使, 否定, 疑問
唐賢清(2004)	5	肯定·強調, 委婉·推斷, 疑問·反詰, 評價, 關係
楊榮祥(2005)	5	確認·強調, 委婉, 不定·推測, 疑問·反詰, 祈使·決斷
李佐豐(2005)	2	疑問, 祈使
高育花(2007)	7	肯定·強調, 不定·推測, 疑問·反詰, 轉折, 祈使, 否定, 謙敬

위의 표를 통하여, 고대한어의 연구들도 어기부사를 분류하는 데 있어 학자마다 서로 다른 분류체계와 범위를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否定', '委婉', '詫異' 등의 항목에서 학자마다 편차가 크다. 이는 고대한어의 연구자들

이 분석의 과정에서 양상, 어기, 서법 등에 대한 등의 개념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균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向熹(1993[2010])가 제시한 어기부사의 의미 유형을 보면, ‘祈使’, ‘疑問’ 등은 서법 기능으로, ‘肯定’, ‘必要’, ‘揣測’ 등은 양상 의미로, ‘反詰’는 의문문의 화용적 의미기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을 모두 어기부사라는 하나의 범주에서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에 의하면 반어문에 사용되는 ‘豈’, ‘庸’과 같은 부사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의문문에도 쓰이기 때문에, 동일한 ‘의문’의 의미를 내포하면서도 이들이 사용된 문형에 따라, 어기부사의 ‘反詰’와 의문부사 혹은 의문대사의 ‘疑問’으로 중복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李佐豐(2005)은 ‘어기’의 의미기능으로 사실상 서법 범주로 보이는 ‘疑問’과 ‘祈使’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祈使’에 포함된 ‘必’, ‘其’와 같은 부사들의 의미는 도의양상으로 볼 수 있으며, 독립된 범주로 설정된 決斷副詞에는 ‘必’, ‘庶幾’와 같이 인식양상을 나타내는 부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李佐豐은 다른 부사와 어기부사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 문형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범주에 양상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를 모두 포함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양상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들이 복수의 하위범주로 분산되어 귀속되었다. 어기부사의 핵심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양상 의미가 중요한 분류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아 전체적인 체계성에 손실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楊伯峻·何樂士(1992[2001])의 경우는 전체 부사의 하위범주로 어기부사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상태(狀態)부사, 추측(推度)부사, 판단(判斷)부사, 권유·명령(勸令)부사, 겸양·존경(謙敬)부사 등으로 구분하여 여타 연구의 어기부사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각각 독립적인 부류로 귀속시켰다. 이러한 방식은 어기부사 내부의 구성원들이 질적으로 균일하지 못한 점을 보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부사의 하위분류의 수가 과도하게 많아지고 양상이라는 동일한 특성을 갖는 부사들이 각각 분산되어 상호 관련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은 단점이다.

본고는 ‘어기’ 혹은 ‘양상’과 관련된 부사를 지칭하는 범주의 명칭으로 국어

용어로는 ‘양상부사’, 중국어 용어로는 ‘情態副詞’를 사용하기로 한다. ‘情態’라는 용어의 사용은 문말의 어기사가 주로 담당하는 직설, 가정, 명령, 의문 등의 서법(mood)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양상조동사 혹은 양상동사 등이 나타내는 의미체계와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양상부사’의 정의를 ‘命題에 대한 話者の 주관적 態度나 觀點을 나타내는 부사’라고 제시한다. 본고가 제시하는 양상부사는 劉月華(2001), 呂叔湘(1980), 向熹(1993[2010]) 등이 동일한 명칭인 ‘情態副詞’를 사용하면서도 그 구성원으로 현대한어의 ‘依然’, ‘親自’이나 고대한어의 ‘竊’, ‘空’과 같이 상황(情狀)이나 방식(方式) 등을 나타내는 부사들을 포함시키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또한 화자의 명제에 관한 관점과 태도가 아닌 화자의 감정이나 정서만을 반영하는 현대한어의 ‘勉強’, ‘故意’, 고대한어의 ‘空’, ‘難’ 등의 단어들도 배제된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의 장절에서 계속 논의하겠다.

### 3. 양상과 양상부사

양상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하위개념을 정리하는 문제는 양상부사의 전체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와 매우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상부사의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양상을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 혹은 명제가 묘사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관점이나 태도’로 정의한다.<sup>2)</sup>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양상부사는 부사어의 위치에서 이상의 정의에 부합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들을 지칭한다.

2) 양상의 정의에 대해서는 ‘명제 혹은 명제가 묘사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관점 혹은 태도’라는 Lyons(1977:452)의 정의가 가장 보편적으로 인용된다. 이 밖에 Palmer(1986:16)은 화자의 주관적 태도나 관점이 문법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하였으며, 彭利貞(2007)은 화자가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의 진리치 혹은 사건의 現實性(realis) 상황에 대하여 나타내는 주관적 태도로 정의하였다. 대부분 ‘화자’, ‘명제’, ‘관점이나 태도’ 등의 요소가 공통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국어에서 양상부사를 포함한 개별 양상어휘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는 매우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학자마다 양상 및 그 하위개념들을 정의하고 체계화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최근 학계는 Palmer(1986, 2001)의 견해에 따라 양상의 의미를 크게 동력(dynamic), 도의(deontic), 인식(epistemic)으로 3분하고 각각의 분류에서 3단계로 정도의 차이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래는 拙稿(2014)에서 李明(2001), 彭利貞(2007), 朱冠明(2008), 謝佳玲(2002, 2006) 등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귀납한 중국어 조동사의 양상의미 체계이다.

〈표 1 중국어 조동사의 양상의미 체계〉

類型 程度	인식양상	도의양상		동력양상	
		평가류	의무허가류	중성류	주어지향류
可能性	[가능(추측)]	[평가]	[허가]	[조건]	I. [능력] II. [의지] III. [용기]
蓋然性	[개연]		[의무]		
必然性	[필연]		[필요]	[필요]	

그러나 이상의 분류체계를 중국어의 양상부사에 바로 적용시키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조동사에 비해 양상부사가 인식양상 혹은 도의양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개별 어휘가 나타내는 양상 의미의 정도성은 그 차이가 현저하지 않다. 그래서 정도의 단계를 기존의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認識類의 경우 [가능(추측)]과 [필연]으로, 義務類의 경우 [허가]와 [의무]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1) 不顧實際一味蠻幹要失敗的。(呂叔湘『現代漢語八百詞』의 用例)  
실제를 보지 않고 무턱대고 무리하면 분명 실패할 것이다.
- (2) 他昨天動身的, 今天應該到了。(同上)

그는 어제 움직였으니 오늘은 마땅히 도착했을 것이다.

(3) 他可能知道這事兒。(同上)

그는 이 일을 아마 알 것이다.

위의 예에서 ‘要’, ‘應該’, ‘可能’은 모두 모종의 추측을 나타내는 인식류 조동사이다. 화자는 이들 단어를 통해 제시된 명제의 진실성에 대하여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된 단어에 따라 화자가 명제에 대하여 내린 판단에 대한 신뢰도는 서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위의 예에서 화자의 명제에 대한 확신의 정도는 ‘要’의 용례에서 가장 높고 ‘應該’가 중간이며 ‘可能’이 가장 낮다. 아래는 인식류 양상부사의 용례이다.

(4) 看到孩子們的進步, 家長必然高興。(同上)

아이들의 발전을 본다면, 학부모들은 분명 기뻐할 것이다.

(5) 你的事大概能辦成。(同上)

너의 일은 아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6) 我明天也許去他家一趟。(同上)

나는 내일 아마도 그의 집에 한 번 다녀올 것이다.

부사 ‘必然’, ‘大概’, ‘也許’도 모두 추측을 나타낸다. 그런데 화자의 명제에 대한 판단의 신뢰도는 ‘必然’이 가장 높고 ‘大概’가 중간이며 ‘也許’가 가장 낮다. 이들은 각각 조동사 ‘要’, ‘應該’, ‘可能’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는 이상과 같은 인식류 조동사 혹은 부사에서 보이는 화자의 확신도의 차이를 0과 1 사이의 수치로 환산하여 0.5보다 크거나 작을 때를 개연성과 필연성의 차이로 간주하였다. 예컨대 ‘必然’과 ‘要’는 0.9, ‘應該’와 ‘大概’는 0.6 ‘可能’와 ‘也許’는 0.1과 같은 식이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에서 양상의미의 정도는 連續性和漸變性を 특징을 갖고 있어서, 개별 어휘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정도만을 알 수 있을 뿐 정확한 계산에 근거한 절대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없다. 예컨대 가장 낮은 정도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능]의 ‘可能’와 ‘也許’ 등은 엄밀히 말하면 해당 명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제시할 뿐

이지 확신의 정도에 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들이 출현한 문장에서 화자가 갖는 명제의 진실성에 대한 신뢰도는 0일 수도 있고 0.5 이상이 될 수도 있다. 환언하면 [가능]으로 분류된 양상 어휘들은 [필연]과 [개연]과는 달리 정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셈이다. 반면, ‘要’, ‘必然’ 등이 나타내는 [필연]의 경우 화자가 해당 명제의 진실성에 대하여 갖는 신뢰도는 사실상 1에 수렴한다. 아래에서 살펴보게 될 ‘確實’, ‘恰恰’ 등 판단양상 [확인]을 나타내는 부사들이 사용된 문장에서도, 화자의 명제에 대한 신뢰도는 사실상 1에 수렴한다. 다시 말해 [필연]과 이후에 살펴볼 판단류 [확인]은 명제에 대한 확신도에 있어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는 [필연]류 양상부사에는 나머지 인식양상부사인 [개연], [가능]과 대별되는 [확신]의 자질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여, 전체 인식양상의 정도성을 2단계로 조정하고 [개연]과 [가능]을 하나로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같은 이유로 도의양상의 [필요]와 [의무]도 하나로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중국어의 부사는 조동사와 달리 판단양상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판단양상이란 이미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강조나 확인을 말한다.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즉 명제의 진실성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인식양상과 마찬가지로 광의의 증거성(evidentiality)<sup>3)</sup>과 관련이 깊다. 하

3) 협의의 증거성은 정보의 연원이나 출처를 지칭한다. Bybee(1985)는 ‘명제에 포함된 정보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 정의하였다. 증거성은 일반적으로 화자가 갖고 있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화자의 감각기관에 의해 직접 획득된 ‘직접지식(direct knowledge)’과 전언이나 보고 그리고 추론 등에 의해 획득된 ‘간접지식(indirect knowledge)’으로 나뉜다. 반면 광의의 증거성은 정보의 출처뿐만 아니라 지식의 신뢰성을 모두 포함한다. 지식의 신뢰성은 인식양상과 중첩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張伯江(1997)은 현대한어의 삽입어 ‘聽說’, ‘據說’를 비롯하여 부사 ‘肯定’, ‘顯然’ 그리고 문말어기사 ‘的’, ‘吧’ 등이 모두 증거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였다. 謝佳玲(2006)은 Palmer(2001)의 영향을 받아 증거성을 인식양상의 일부로 포함하는 광범위한 인식양상을 설정하였다. 謝佳玲은 인식양상의 아래에 ‘판단’과 ‘증거’ 두 계통을 설정하였는데, [증거]는 [인용]([聽說], ‘據說’)과 [감지]([好像], ‘顯然’) 등 전형적인 증거성 의미들을 포함하며, [판단]은 [가능]([也許], ‘恐怕’), [단정]([一定], ‘肯定’), [진위]([真的], ‘確實’)를 포함한다. 이 중 [가능]과 [단정]은 기존 연구의 인식양상에 상당한다. 본고는 대체로 후자의 방식에 대체로 동의하나, 謝佳玲(2006)과 같이 증거성과 인식양상을 포함관계로 보지 않으며, 상호 관련성이 높은 별개의 범주로 판단한다. 이에 협의의 증거성에 해당하는 謝佳玲(2006)의 ‘증거’류를 모두 양상의미에서 배제하며, ‘판단’류에서 기존의 인식양상에 포함되지 않던 [진위] 부류를 판단양상으로 별도로

지만 인식양상이 화자가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사실성]의 특징을 갖는 명제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것임에 비하여, 판단양상은 화자가 이미 사실로 확정되어 그것이 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성]의 특징을 갖는 명제에 대하여 자신의 관점이나 태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 아래의 예를 보자.

- (7) 這部電影確實不錯。(呂叔湘『現代漢語八百詞』의 用例)  
이 영화는 확실히 좋다.
- (8) 你來得真巧, 今天我恰恰在家。(同上)  
너 꼭 맞게 잘 왔구나, 오늘 내가 마침 집에 있는데 말이야.
- (9) 小人實不才。(《左傳·襄公三十一年》)  
소인은 실로 재주가 없습니다.
- (10) 是乃仁術也。(《孟子·梁惠王上》)  
이것이 바로 인(仁)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위의 예에는 현대한어 판단류 양상부사 ‘確實’, ‘恰恰’와 고대한어 판단류 양상부사 ‘實’, ‘乃’가 각각 쓰였는데, 문장에서 화자는 이미 존재하는 사실의 진실성을 강조하거나 확인한다. 화자는 그 사실이 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가정한다. (7)에서 ‘영화가 좋다’와 (8)의 ‘오늘 내가 집에 있다’와 같은 명제는 각각 발화시점에 있어 이미 기정사실로 존재한다. ‘確實’, ‘恰恰’ 등의 부사를 통하여 화자는 청자에게 명제의 진실성을 확인하거나 강조한다. 그 확인과 강조의 과정은 [필연]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여 결정되는데, 여기에서 화자가 명제의 진실성에 대하여 갖는 신뢰도는 위의 예에서 ‘要’, ‘必然’ 등이 나타내는 인식류 [필연]에서와 같이 1에 상당한다. 명제의 [+사실성] 여부가 인식양상과 확인양상을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9)와 (10)에서 고대한어의 ‘實’, ‘乃’도 동일한 기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7), (9)와 (8), (10)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7), (9)가 화자가 이미 존재하는 명제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강조하는 것이라면,

(8),(10)은 명제의 진실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명제와 관련된 어떠한 측면(주로 주체)이 모종의 조건에 부합함을 함께 강조한다. 이 둘을 구분하여 [확인]과 [강조]로 각각 명명하고 판단양상의 하위분류로 설정하였다.

셋째, 중국어의 양상부사는 조동사와 달리 평가양상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평가양상이란 기지사실(known fact)의 가치나 특징에 관한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나타낸다. 명제의 진실성 즉 진위 여부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가 아니라 인식양상이나 판단양상과 구분된다. 현대한어의 조동사에서는 評價類 양상의미는 매우 제한적으로 실현되었으며,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개 도의양상의 일부로 처리하였다. 하지만 부사에서는 評價類 의미가 비교적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評價類를 대분류로 독립시키고 그 하위분류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서 기지사실이란 화자가 사실이라고 여기는 명제 자체에 포함된 내용을 가리킨다. 평가양상은 명제의 진위가 아닌 명제의 내용 자체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현대한어 ‘竟然’, ‘果然’, ‘幸虧’, ‘偏偏’ 등의 부사가 나타내는 의미가 여기에 속하며, 고대한어의 경우 ‘曾’, ‘乃’, ‘果’ 등이 이러한 의미를 나타낸다.

(11) 這麼大的工程竟然在兩年內完成了。(同上)

이렇게 큰 공정을 놀랍게도 2년 내에 완성하였다.

(12) 幸虧他眼疾手快, 拉住了我。(同上)

다행히 그는 눈과 손이 빨라서 나를 끌어당겼다.

(13) 喪亂蔑資, 曾莫惠我師。(《詩經·大雅·板》)

상란을 당해 물자가 부족한데도 도리어 우리 백성을 사랑해주지 않았다.

史金生(2003)은 이런 류의 부사를 ‘발화 내용에 대한 평가’로 총괄하고 그 하위분류로 [관계(關係)]와 [성질특징(性質特點)] 두 범주를 설정하였다. 張誼生(2014)은 [원인 설명(釋因)](‘的確’, ‘確實’ 등), [총결(總結)](‘究竟’, ‘畢竟’ 등), [의외(意外)](‘竟然’, ‘偏偏’ 등), [요행(僥倖)](‘幸虧’, ‘幸而’ 등), [반전(逆轉)](‘反而’, ‘反倒’ 등) 등으로 분산하여 분류하였다. 謝佳玲(2006)은 평가양상

을 인식, 도의, 동력과 동일하게 대분류로 설정하고, 그 유형을 기대(豫料), 소망(心願) 두 계통으로 체계화하여 각각 정과 부의 두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예컨대 '果然'는 기대에 부합하는 [+豫料]의 유형이고, '竟然'는 반대로 기대에 어긋나는 [-豫料]의 유형이다. 또한 '幸虧'는 소망에 부합하는 [+心願] 유형이며, '偏偏'의 경우는 그 반대인 [-心願]에 해당한다.<sup>4)</sup> 본고는 謝佳玲(2006)의 방식에 대체로 동의하며, 현대한어 평가양상의 하위분류로 [기대(預期)]·[반기대(反預期)]와 [요행(僥幸)]·[애석(惋惜)]을 각각 설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상고한어로 대상을 한정한다면 [애석(惋惜)]은 부사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넷째, 그 밖의 세부적인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고한어 문헌에 한정하여 보면, [허가]의 의미가 부사로 실현되는 용례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상고한어의 양상부사에 한하여 [허가]류는 삭제해도 무방하다.<sup>5)</sup> 또한 상고한어에서 도의양상인 [의무], [필요] 등을 나타내는 부사들은 조동사와는 달리 단어별로 화자가 부여한 의무의 정도 차이가 현저하지 않다. 이에 필요성의 정도가 낮은 [의무]를 취소하고 [필요]로 통합하였다. 또한 동력양상의 能力類와 勇氣類는 고대한어와 현대한어에서 모두 부사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고는 중국어 양상부사의 의미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 4) 謝佳玲(2006)은 '幾乎', '正好', '不單', '完全' 등의 부사들에 대하여, 이들은 명제 전체가 나타내는 상황을 수식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서 각각 '정도의 차이', '시간의 선후', '범위의 크기', '수량의 많고 적음' 등과 같이 명제의 일부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또한 '反正', '好'와 같은 부사는 "不管怎樣"에 해당하는 사실상 모종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화자의 견해나 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평가양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고는 양상을 명제 전체에 대한 화자의 관점이나 태도로 본다면 이러한 처리 방식은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각각의 의미에 따라 정도부사, 시간부사, 범위부사로 분류한다.
- 5) 상고한어에서 [허가]의 부정이라 할 수 있는 [금지]는 '勿', '毋', '无' 등으로 실현되었다.

〈표 2 중국어 양상부사의 의미체계〉

判斷	認識	道義	動力	評價
[확인] (確實、其實)	[가능] (也許、几乎)	[허가] (不妨、無妨)	[의지] (寧可、索性)	[기대] (果然、無怪) [반기대] (竟然、居然) [요행] (幸虧、好在) [애석] (可惜、偏偏)
[강조] (才、恰恰)	[필연] (必然、一定)	[필요] (務必、千萬)		

조동사의 의미체계와 비교하여 〈표 2〉는 도의양상의 하위분류에 속하던 판단류를 대분류로 독립시켰으며, 조동사로는 실현되지 않았던 평가류를 독립적인 대분류로 추가하였다. 그 중 판단류는 명제의 사실성에 대한 [확인], [강조]를 포함하고, 평가류는 [기대], [반기대], [요행], [애석]을 포함한다.

아래는 위의 표에서 배제된 의미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첫째, 史金生(2003)는 ‘到底’, ‘究竟’, ‘難道’, ‘何必’ 등의 부사가 나타내는 의미를 [의문(疑問)]으로 귀속하고, 그 기능을 ‘의문의 어기를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함’으로 설명하였다. 張誼生(2014)은 이러한 종류의 부사들의 의미를 [심구(深究)]로 명명하고 ‘의혹, 반문, 책망의 양상’으로 설명하였다.

- (14) 你二位老人家，可曾聽見那紀賊父子竟被朝廷正法了？(文康《兒女英雄傳》)

두 어르신께서는 그 교활한 부자가 뜻밖에도 조정에 의해 처형되었다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 (15) “你倒是去不去？若不去，我們就走了。”她略顯焦急地問道。(向東《我們這一代人》)

“너는 도대체 가는 거니, 아니니?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겠어.” 그녀는 조금 초조하게 물어봤다. [이상 張誼生(2014:61)에서 재인용]

www.kci.go.kr

그런데 郭新雨(2003)는 이 가운데 ‘到底’, ‘究竟’ 등은 아래와 같이 반어문이

아닌 의문사의문문, 시비의문문 등 일반적인 의문문에 출현하는 경우, 화자의 명제의 진실성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문의 어기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기부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고는 郭新雨(2003)의 견해에 동의하며, (16)의 ‘究竟’ 과 (17)의 ‘到底’는 단순히 ‘추궁’의 의미를 나타내는 의문부사로 처리한다.

- (16) 究竟哪種態度是我們需要的?(《毛澤東選集》805)  
대체 어떠한 태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인가?
- (17) 這個地窖里藏的到底是什麼?(武崗忠主編《現代漢語常用虛詞詞典》)  
이 토굴에 숨긴 것은 대체 무엇이요? [이상 郭新雨(2003)에서 재인용]

본고는 더 나아가 ‘難道’, ‘何必’ 그리고 상고한어 ‘豈’, ‘庸’ 등과 같이 반어문에 쓰이는 부사들도 양상부사의 범주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한다. 화자는 반어문이라는 의문문 형식을 통해 부정으로 긍정을 나타내거나 긍정으로 부정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보이는 긍정 혹은 부정의 판단은 반어문이라는 문형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며, 문장을 통해 추론되는 불만, 추궁, 의심 등의 화자의 태도는 문맥에 의해 결정되는 화용적 의미에 속한다. 본고는 이들 부사는 단순히 해당 명제의 부정을 강화하는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견해라는 본고의 양상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들을 양상부사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楊伯峻·何樂士(2001)와 같이 의문부사로 독립시킬 것을 제안한다.

둘째, 史金生(2003), 郭新雨(2003) 등은 감탄문에서 주로 쓰이는 ‘好’, ‘太’, ‘多’, ‘多么’, ‘可’, ‘真’ 등을 어기부사로 인정하고 의미유형을 [감탄(感嘆)]으로 명명하였다.

- (18) 天津的天气真糟糕!  
텐진의 날씨는 정말로 엉망이야!
- (19) 他這個人可好了!  
그 사람 정말 좋은데! [이상 郭新雨(2003:28)에서 재인용]

이들 부사의 일반적인 기능은 (18)과 같이 형용사를 수식하여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19)와 같이 ‘可……了’라는 감탄문의 문형에 쓰여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본고는 감탄문에서 표현되는 화자의 주관적 태도도 감탄문이라는 문형에서 부여된 것이며 해당 부사는 여전히 정도만을 나타내는 것이라 판단하여 이들을 정도부사로 처리한다. 또한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상고한어의 ‘重’, ‘孔’ 등도 양상부사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정도부사로 처리한다.

셋째, 谷峰(2010 : 4-5, 164-151), 高育花(2007 : 31-35) 등은 ‘惠’, ‘幸’, ‘敬’, ‘謹’ 등이 나타내는 의미를 어기부사의 의미유형으로 인정하고 이를 [겸경(謙敬)] 즉, ‘겸양 및 존경’으로 명명하였다. 상고한어 시기에 이들 부사는 제례, 외교, 유세, 간언 등의 상황에 주로 사용되어 겸양과 존경의 의미를 나타냈다. 중고한어 시기 이후에는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어 현대한어에서는 일부 서면어에서 ‘敬(贈)’, ‘光(臨)’ 등과 같이 仿古의 형태로만 잔존해 있다.

(20) 臣從其計, 大王亦幸赦臣。(《史記·廉頗藺相如列傳》)

신이 그 계책을 따르니, (황공하옵게도) 대왕께서도 또한 신을 사면하여 주셨습니다.

(21) 驪忌子曰: “謹受命。”(《史記·田敬仲完世家》)

추기자가 말하였다. “삼가 명을 받겠습니다.”

(20)의 ‘幸’, (21)의 ‘謹’ 모두 문장에서 화자가 보이는 모종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20)에서 화자는 존경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1)에서 화자는 겸양의 태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여기에서 화자의 태도란 화자가 문장에 반영된 명제에 대하여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동작이나 행위와 관련하여 화자가 청자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 취하는 태도이며, 이는 명제의 진실성에 대한 화자의 관점이나 태도라는 본고의 양상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본고는 이들 부사를 楊伯峻·何樂士(1992), 李佐豐(2004) 등과 같이 겸양(謙敬)부사를 직접 부사의 하위분류로 독립시키거나 상황방식(情狀方式)부사에

함께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 4. 상고한어 양상부사의 범위와 분류

이래에서는 이상의 논의에서 도출된 기준에 따라 상고한어 양상부사의 의미 유형을 분류하여 구성원들을 귀속하고 이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 1) 판단(判斷)양상

판단양상은 화자가 기정사실에 속하는 명제의 진실성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나 관점을 말한다. 명제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조의 기능을 담당한다. 명제의 진실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인식양상과 유사하나, 미지사실이 아닌 기정사실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인식양상과 대별된다. 판단양상은 다시 [확인]과 [강조]로 구분된다.

[확인]은 ‘其實’, ‘確實’와 같이 화자의 명제의 진실성에 대한 인정을 가리킨다. 상고한어에서 [확인]을 나타내는 양상부사는 ‘信’, ‘誠’, ‘固’, ‘實’, ‘果’, ‘眞’, ‘審’, ‘良’, ‘允’, ‘愼’, ‘亶’, ‘展’, ‘謹’, ‘洵’ 등이 있다. 이들 부사는 모두 이미 사실인 행위와 사태의 진실성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강조하며, ‘확실히 그러함’, ‘실로 그러함’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 가운데 ‘固’는 명제의 진실성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그 본질적 속성을 함께 강조한다.

(22) 皙信美矣, 抑子南, 夫也。(《左傳·昭公元年》)

자식은 실로 용모가 빼어나다. 하지만 자남은 장부이다.

(23) 吾未知善之誠善邪, 誠不善邪。(《莊子·至樂》)

나는 선이 실로 선한 것인지 실로 선하지 않은 것인지 아직 모른다.

- (24) 我實不德，齊師何罪？(《左傳·莊公八年》)  
 내가 실로 부덕한 탓이니 제나라 군사들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 (25) 上賢貫高爲人能立然諾，使泄公具告之，曰，“張王已出。”因赦貫高。貫高喜曰，“吾王審出乎？”泄公曰：“然。”(《史記·張耳陳餘列傳》)  
 주상은 신의를 지키는 관고의 사람됨을 훌륭하게 여겨 설공을 시켜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알려 주도록 하고 말하였다. “조나라 왕은 벌써 풀려났소.” 이에 관고도 사면하였다. 관고가 기뻐하면서 말했다. “우리 왕께서 정말로 풀려나셨습니까?” 설공은 대답하였다. “그렇소.”

[강조]는 명제에서 주체 혹은 주어 가 모종의 조건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강조한다. ‘就(是)’, ‘正(是)’와 같이 판단을 강조하는 부사들이 대체로 여기에 포함된다. 상고한어에서 [강조]를 나타내는 양상부사는 ‘方’, ‘正’, ‘適’, ‘乃’, ‘卽’ 등이 있다.<sup>6)</sup> 이들 부사는 주로 판단문에 쓰여 명제의 진실성 대한 화자의 긍정적 판단과 태도를 강조한다.

- (26) 尹文曰：“竊觀陛下之治齊也，方若此也。”(《呂氏春秋·正名》)  
 윤문이 말하였다. “삼가 폐하께서 제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니, 바로 이와 같습니다.”
- (27) 民死亡者，非其父兄，卽其子弟。(《左傳·襄公八年》)  
 (이번 전쟁에) 죽은 백성은 부형(父兄)이 아니면 바로 자제(子弟)입니다.
- (28) 夫虞之有虢也，如車之有輔，輔依車，車亦依輔。虞、虢之勢正是也  
 우 나라에 곽 나라가 있는 것은 수레에 받침대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받침대는 수레를 의지하고 수레는 또한 받침을 의지합니다. 우, 곽 두 나라의 형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 (29) 孔子曰：審吾所以適人，適人之所以來我也。(《荀子·王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사람들에게 가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이유인 것을 살펴야 한다.”

6) 기존의 일부 연구에서는 판단문에 출현하는 ‘唯’, ‘伊’를 판단류 부사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洪波(2000)등에서는 초점강조의 표지로 분류한다. 본고는 이러한 견해에 대체로 동의하며, 이들 부사가 나타내는 의미는 화자의 명제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양상부사에서 제외하였다.

## 2) 인식(認識)양상

인식양상은 화자가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여 명제의 진실성에 대하여 내린 판단을 나타낸다. 명제의 진실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판단양상과 유사하나, 사실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즉, 가능세계(可能世界, possible world)에서 명제의 진실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상술한 판단양상과 대별된다. 인식양상은 화자의 확신 정도의 차이에 따라 확신도가 높은 [필연]과 확신도가 높지 않은 [가능]으로 구분된다.

[필연]류는 현대한어의 ‘一定’, ‘必定’과 같이 인식양상 가운데 화자의 확신도가 높은 의미 유형이다. 상고한어에서 [필연]을 나타내는 양상부사로는 ‘必’, ‘固’, ‘斷’, ‘決’ 등이 있다. 이 가운데 ‘必’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固’, ‘斷’, ‘決’ 등은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sup>7)</sup>

(30) 三人行，必有我師焉。(《論語·述而》)

세 명이 길을 가면 그 중 반드시 나의 스승이 한명 있다.

(31) 介石焉，寧用終日，斷可識矣。(《周易·系辭下》)

절개가 돌과 같으니 어찌 날이 마치도록 쓰리오. 분명 알 수 있으리라.

(32) 相如度秦王雖齋，決負約不償城。(《史記·廉頗藺相如列傳》)

상여는 진왕이 비록 재계를 하더라도, 분명 약속을 저버리고 성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였다.

[가능]류는 현대한어의 ‘大概’, ‘也許’와 같이 인식양상 가운데 화자의 확신도가 낮은 의미 유형이다. 상고한어에서 [가능]을 나타내는 양상부사는 종류가 많은 편인데, ‘其’, ‘將’, ‘且’, ‘殆’, ‘庶’, ‘庶幾’, ‘意’, ‘意者’, ‘或者’, ‘其諸’, ‘得無’, ‘無乃’, ‘蓋’ 등이 있다.

7) 谷峰(2010:79)은 상고한어에서 필연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 ‘斷’, ‘決’, ‘要’가 출현한 용례는 모두 한 번씩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들 모두 《史記》 이후에는 매우 빈번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본고는 이 가운데 ‘要’는 ‘바라다’ 의미의 동사에서 직접 발전한 조동사로 판단하며 부사로 간주하지 않는다.

- (33) 少長有禮, 其可用也.(《左傳·僖公二十八年》)  
 젊은이와 어른들이 모두 禮가 있으니, 아마도 잘 부릴 수가 있겠다.
- (34) 離外之患, 而天不靖晉, 國殆將啓之.(《左傳·僖公二十三年》)  
 (공자가) 국외로 떠도는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하늘이 진나라를 안정시키지 않았으니, 진나라는 아마도 장차 공자를 임금으로 맞이하려는 듯합니다.
- (35) 寡人以爲善, 庶幾息兵革.(《史記·秦始皇本紀》)  
 과인이 그것을 잘했다고 여기는 것은 아마도 (그렇게 하여) 전쟁을 멈추게 하였기 때문이다.
- (36) 今吾事先生久矣, 而福不至, 意者先生之言有不善乎?(《墨子·公孟》)  
 지금까지 선생을 섬긴지 오래되었지만 복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선생님의 말씀에 不善이 있는 것이지요?
- (37) 居簡而行簡, 無乃大簡乎?(《論語·雍也》)  
 간소하게 거동하고 간소하게 행동하면 아마도 지나치게 간소한 것이겠지요?
- (38) 列御寇蓋有道之士也.(《莊子·讓正》)  
 열어구는 아마도 도(道)를 가진 선비일 것입니다.

### 3) 도의(道義)양상

인식양상이 화자의 명제의 진실성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나타낸다면, 도의양상은 화자가 명제가 나타내는 사건을 진실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를 나타낸다. 즉, 화자가 동작주에게 모종의 행위를 실행할 도의적 책임을 부여하여, 명제가 나타내는 사실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진실이 되도록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의양상은 도의적 책임의 부여 정도 즉, 화자가 판단하는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필요]와 [허가]로 구분된다. 그러나 상고한어에서 [허가]는 부사로 실현되지 않으며, [필요]를 나타내는 부사만 존재한다.

[필요]는 현대한어의 '應當', '務必'와 같이 도의양상 가운데 필요성의 정도가 높은 의미 유형이다. 상고한어에서 [필요]를 나타내는 양상부사는 주로 명령문에 출현하는 것으로 '尙(上)', '其', '式', '苟' 등이 있다.

- (39) 上慎旃哉，猶來無止。(《詩經·魏風·陟岵》)  
부디 몸조심 하여라, (죽어서) 머물지 말고 (살아) 돌아와 다오.
- (40) 吾子其無廢先君之功。(《左傳·隱公三年》)  
그대는 선군의 공덕을 폐하지 말하라.
- (41) 雖無旨酒，式飲庶幾。(《詩經·小雅·車牽》)  
맛있는 술 없어도 그런대로 마시라.
- (42) 兄及弟矣，式相好矣，無相猶矣。(《詩經·小雅·斯干》)  
형과 아우는 서로 우애롭게 지내야 하며, 서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

평서문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必’, ‘務’ 등이 있다.

- (43) 叔山冉謂養由基曰，“雖君有命，爲國故，子必射”。(《左傳·成公十五年》)  
叔山冉이 養由基에게 말하였다. “비록 활을 쏘지 말라는 王命이 있었으나 國家를 위하여 그대는 반드시 활을 쏘아야 합니다.”
- (44) 君子之事君也，務引其君以當道，志於仁而已。(《孟子·告子下》)  
군자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그(자신의) 임금을 이끌어 도(道)에 맞게 하고 인(仁)에 뜻을 두게 할 뿐입니다.

#### 4) 동력(動力)양상

동력양상은 [능력]이나 [의지]와 같이 명제가 나타내는 사건이 진실이 되는 조건에 관한 화자의 관점이나 태도를 지칭한다. 사건이 진실이 되는 조건이 주어 또는 동작주 내부에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양상과 차이가 있다. 이 가운데 [능력]은 ‘能’, ‘可以’ 등과 같이 모종의 사건을 참이 되게 하는 잠재력(capacity)을 말하는데, 상고한어의 경우 [능력]은 주로 조동사에 의해 실현되며 부사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의지]는 ‘要’, ‘愿意’와 같이 모종의 사건을 참이 되게 하고자 하는 의도(volition)을 말한다. 상고한어에서는 [의지]를 나타내는 부사는 ‘尙’, ‘其’, ‘式’, ‘苟’, ‘庶’, ‘庶幾’, ‘寧’, ‘必’, ‘斷’, ‘決’ 등이 있다.

- (45) 初靈王卜曰，余尙得天下。(《左傳·昭公十三年》)  
 當初에 靈王이 점을 치며 말하였다. “나는 天下를 얻고자 한다.”
- (46) 必報讎，吾寧事齊楚。(《國語·晉語三》)  
 반드시 그들에게 복수하느니, 나는 차라리 제와 초를 섬길 것이다.
- (47) 爲我悔也，寧亡三城而悔，無危乃悔，寡人斷講矣。(《韓非子·內儲說上》)  
 내가 후회를 한다면 차라리 세 개의 성을 잃고 후회하지 나라가 위태로  
 위지고서 후회하지는 않겠다. 과인은 반드시 강화를 할 것이다.

## 5) 평가(評價)양상

평가양상이란 기지사실(known fact)의 가치나 특징에 관한 화자의 주관적 인 평가를 나타낸다. 명제의 진실성 즉 진위 여부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인식, 도의 등과 다른 비전형적인 양상 의미로 볼 수 있다. 현대 한어의 경우 [기대(預期)]·[반기대(反預期)]와 [요행(僥幸)]·[애석(惋惜)]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상고한어에도 [기대], [반기대], [요행]을 나타내는 부사가 사용되었다.<sup>8)</sup> 하지만 ‘可惜’, ‘偏偏’와 같이 [애석]을 나타내는 부사는 상고한어 시기에 존재하지 않았다.

[기대]를 나타내는 양상부사는 ‘果’가 있다.

- (48) 宋有富人，天雨牆壞。其子曰：“不築，必將有盜。”其鄰人之父亦雲。暮而果大亡其財。(《韓非子·說難》)  
 송나라에 부자가 있었는데 하늘에서 비가 와서 담이 무너졌다. 그 아들이 말했다. “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앞으로 도둑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웃 노인도 역시 언급을 하였다. 날이 저물자 과연 그 재물을 크게 도둑맞았다.

8) 상고한어의 ‘果’, ‘固’ 등은 현대한어의 [기대(預期)]를 나타내는 부사 ‘當然’, ‘果然’ 등에 종종 대응된다. 하지만 谷峰(2010:27)은 이들 부사가 [반기대]의 양상부사와는 달리 종속절 내에서도 출현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이미 알고 있는 명제의 진실성만을 단언하는 [확인]류로 분류하였다.

[요행]을 나타내는 양상부사는 ‘幸’, ‘賴’ 등이 있다.

- (49) 先生幸告之以便計, 請奉教。(《史記·滑稽列傳》)  
선생께서는 다행히 편리한 계책을 일러 주셨습니다. 선생 말을 받들겠습니다.
- (50) 此人親驚吾馬, 吾馬賴柔和, 令他馬, 固不敗傷我乎?(《史記·張釋之馮唐列傳》)  
이 사람이 직접 내 말을 놀라게 했소. 내 말이 다행히 온순하였기 망정이지 다른 말 같았으면 나를 떨어뜨려 다치게 했을 것이오.

[반기대(反預期)]는 ‘竟然’, ‘居然’과 같이 명제에 반영된 상황이 자신의 기대와 부합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상고한어에서 [반기대]를 나타내는 양상부사는 ‘曾’, ‘櫛’, ‘寧’, ‘一’, ‘乃’ 등이 있다.

- (51) 喪亂蔑資, 曾莫惠我師。(《詩經·大雅·板》)  
상란을 당해 물자가 부족한데도 우리 백성을 사랑해주지 않는다.
- (52) 民言無嘉, 櫛莫懲嗟。(《詩·小雅·節南山》)  
백성의 말은 기쁨을 잃었는데, 도리어 징벌하지 않는다.
- (53) 胡能有定? 寧不我顧。(《詩·邶風·日月》)  
어찌 마음을 편히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나를 살피지 않는군요.
- (54) 宣王太息動於顏色曰: 靜郭君之於寡人, 一至此乎! (高誘注: 一, 猶乃也。)(《呂氏春秋·知士》)  
선왕은 크게 탄식하며 안색을 바꾸고서 말하였다. 정곽군이 나를 대하는 것이 뜻밖에도 여기에까지 이르렀다니!
- (55) 先生不羞, 乃有意欲爲收責於薛乎?(《戰國策·齊策四》)  
선생께서는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를 위해 설 땅에 가서서 빛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래는 이상의 논의에서 도출된 기준에 따라 상고한어의 양상부사를 분류한 표이다.

認識情態	可能	其1, 將, 且, 殆1, 庶1, 庶幾1, 意, 意者, 或者, 其諸, 得無, 無乃, 蓋
	必然	必1, 固1, 斷1, 決1
道義情態	必要	必2, 務, 尙1, 其2, 式, 苟,
動力情態	意願	尙2, 其3, 式, 苟, 庶2, 庶幾2, 寧1, 必3, 斷2, 決2
判斷情態	確認	信, 誠, 固2, 實, 果1, 眞, 審, 良, 允, 慎, 亶, 展, 謹, 洵
	強調	方, 正, 適, 乃1, 卽
評價情態	反預期	曾, 慳, 寧2, 一, 乃2
	預期	果2
	僥倖	幸, 賴
	惋惜	.

## 5. 결론

본고는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여 상고한어 양상부사를 대상으로 그 의미유형의 범주를 확정하고 각 유형별로 구성원을 귀속시켰다. 논의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첫째, 상고한어 양상부사의 의미유형은 인식, 도의, 동력, 판단, 평가로 대분류된다.

둘째, 판단류는 [+사실성]의 특징을 갖는 명제의 진실성에 대한 화자의 견해나 태도를 가리키며, 주체가 모종의 조건에 부합함을 강조하는지 여부에 따라 [확인]과 [강조]로 세분된다.

셋째, 인식류는 [+사실성]의 특징을 갖는 명제의 진실성에 대한 화자의 견해나 태도를 가리키며, 확신 여부에 따라 [가능]과 [필연]으로 세분된다.

넷째, 도의류는 화자가 동작주에게 명제의 사건과 관련한 도의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고한어 도의류 양상부사는 필요성의 정도가 높은 [필요]를 나타낸다.

다섯째, 동력류는 동작주를 지향하는 의미유형으로 상고한어 양상부사에는

동작주의 의도나 희망을 나타내는 ‘의지(意願)’류만 존재한다.

여섯째, 평가류는 명제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견해나 태도를 가리키며, 상호한어에는 [기대], [반기대], [요행]의 유형이 존재한다.

일곱째, [의문], [반문] 등은 부사 자체가 아닌 문형이 부여하는 화용적 의미라는 점에서, [겸손], [존경]은 명제가 아닌 청자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그리고 [감탄]은 명제 전체가 아닌 명제의 일부인 어떠한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각각 양상부사의 의미유형에서 제외한다.

#### < 參考文獻 >

- 高育花, 『中古漢語副詞研究』, 合肥, 黃山書社, 2007.
- 郭新雨, 『現代漢語語氣副詞研究』, 天津, 天津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3.
- 胡裕樹·許寶華, 『現代漢語』,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81.
- 谷 峰, 『先秦漢語情態副詞研究』, 天津, 南開大學, 2010.
- 李 明, 『漢語助動詞的歷史演變研究』, 北京, 北京大學博士論文, 2001.
- 李素英, 『中古漢語語氣副詞研究』,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2013.
- 李佐豐, 『古代漢語語法學』, 北京, 商務印書館, 2005.
-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1999.
- 彭利貞, 『現代漢語情態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
- 齊春紅, 『現代漢語語氣副詞研究』, 昆明, 雲南人民出版社, 2008.
- 史金生, 「語氣副詞的範圍、類別和共現順序」, 『中國語文』, 2003年第1期.
- 唐賢清, 『朱子語類副詞研究』,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2004.
- 王 力, 『中國現代語法』, 北京, 中華書局, 1985[1943/1944].
- 王 力, 『漢語語法綱要』,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82[1946].
- 向 熹, 『簡明漢語史(修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10.
- 謝佳玲, 「漢語情態詞的語意界定」, 『中國語文研究』 21, 45-6.3.
-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北京, 語文出版社, 1992.
- 楊榮祥, 『近代漢語副詞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5.
- 尹淳一, 『「祖堂集」情態動詞及其語法化研究』, 上海,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2014.

張誼生, 『現代漢語副詞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14.

朱冠明, 『「摩訶僧祇律」情態動詞研究』,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2008.

Lyons, J. (1977) *Semantic(V.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 Abstract >

### The Scope of Modal Adverbs in Ancient Chinese

Yoon, Soon-il

In this paper, we have investigated the scope of modal adverbs in ancient chinese. We have also described our classification of semantic category in ancient chinese modal adverbs. It can be classified into five major categories: epistemic, deontic, dynamic, judgmental and evaluative modalities. The differences between classification of modality in chinese adverbs and that in chinese auxiliary verbs are as follows: (1)The former added judgmental modality as a root category. (2)The former added evaluative modality as a root category. (3)About speaker's degree of certainty, the former adopted a two-level system. Our semantic classification of ancient chinese adverbs does not include meanings of interrogative adverbs, exclamatory adverbs and modest and respective adverbs.

Key words: Modal Adverbs, Ancient Chinese, Scope, Judgmental Modality, Evaluative Modality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7. 11. 15.	2017. 11. 28.	2017. 11. 29.	2017. 12. 12.	2017. 12. 31

